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3 호 7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제 13 호 (227)

1963년 7월 (상)

(반 월 간)

차 례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 혁명에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역할

하 앙 천

오늘 남조선 인민 앞에는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남조선에서의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혁명이며 봉전 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 혁명의 기본 요구는 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구축하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며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조선 인민의 주되는 투쟁 대상은 미 제국주의다. 미제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민족은 갈라져 있으며 남조선 사회는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지 못 하고 인민은 날로 더 불행과 재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혁명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 세력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낸다면 민족 해방의 혁명 과업은 완수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전 미제에게 운명을 의탁하고 있는 남조선의 지주, 예속 자본가 등 반동 계급들의 지반도 쉽게 숙청될 것이며 민주주의 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구축하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며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과 남조선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한 최대의 민족적 과업이다.

이 혁명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놀아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반미 구국 투쟁에서 발휘한 혁명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 미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청년 학생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사회적 처지와 식민지 통치 하의 청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일반적으로 청년 학생들은 진리와 리상적 사회에 대한 불타는 동경심, 정의감을 소유하고 있으며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해 보려는

열화 같은 정열, 진취성, 용감성과 같은 귀중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학생들은 새것에 민감하며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불합리한 사회를 타파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적 정신까지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예속 국가에서 청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원대한 희망과 포부는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자들에 의하여 여지 없이 유린 말살된다.

그들에게는 오직 혹독한 식민지적 략탈, 극심한 민족적 압박과 멸시, 차별적 대우, 식민지적 우매화 정책과 노예 교육이 차례질 뿐이다.

그런데 식민지 나라들에서 청년 학생층은 누구보다도 정치에 민감하며 세계 발전의 추세와 선진 사상 조류에 먼저 합류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식민지 청년 학생들 속에서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반항심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로 하여금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일떠서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일제 식민지 통치 하의 조선 청년 학생들과 오늘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였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청년 공산주의자들에게 주신 교시》에서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혁명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식민지 국가인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은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을 실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성이 완강하며 또한 학생들이란 대체로 출신 성분 여하를 물론하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의가 높으며 진리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며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조선 청년 학생들처럼 그렇게 심각하고 뼈아프게 제국주의적 압박을 체험하였으며 제국주의적 압박과의 투쟁의 필요성을 그렇게 날카롭고 절실하게 느낀 례는 매우 드물 것이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 처지가 더 악화되여 가고 있다. 미제의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는 남조선을 일체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된 암흑의 천지로, 대중적 테로와 학살이 감행되고 있는 인민의 도살장으로, 기아와 빈궁이 휩쓰는 참담한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미제와 조선 인민 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파쑈적 폭압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반항 기세를 더욱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 대중을 타방으로 하는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극소수의 특권 지배층 출신을 제외하고는 그의 절대 다수가 몰락 과정에 있는 소부르죠아 출신이다. 그들은 모두 미제와 그 주구들의 혹심한 식민지적 억압 밑에

수시로 배움의 길을 빼앗기고 있으며 설사 졸업하고도 실업과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헤매이게 되며 미제의 대포'밥이 될 위험한 처지에 있다.

그들이 처하여 있는 오늘의 비참한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적 억압과 멸시에 분개하고 정의감과 동포애에 불타고 용감성과 진취성이 강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 혁명 투쟁에 대담하게 투신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물며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고 3. 1 봉기와 광주 학생 운동, 해방 직후 《국대안》 반대 투쟁, 4월 봉기 등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여 영용한 투쟁을 전개한 애국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임에랴!

2

4월 봉기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 매국 역도들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를 폭발시킨 것으로 되며 새 정치, 새 생활을 쟁취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이였다.

리 승만 괴뢰 정권을 전복한 이 투쟁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는 4월 봉기를 통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투쟁에서 어떻게 교량(橋梁)적 역할을 놀았으며 인민들이 단결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아성이라도 처부실 수 있으며 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4월 봉기에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나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 사회적 부패는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소위 《5. 16 군사 정변》후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정치적 무권리, 생활난, 수학난, 취직난은 최악의 절정에 도달하였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전대 미문의 중세기적 파쑈 통치 체계를 수립하고 애국적인 정당 사회 단체들을 가혹하게 탄압 해산시키고 진보적인 언론 출판 기관을 모조리 폐쇄하였으며 애국적 인사들과 청년 학생들 기타 무고한 인민 대중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고 있다.

미제와 군사 불한당들은 소위 부르죠아적 자유의 허식마저 완전히 걷어 치우고 일체 사회 정치 생활에서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 도덕 생활과 풍습에 이르기까지 《악법》을 조작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군사 파쑈적 규률과 질서에 얽매이게 하였다. 무지막지한 군사 파쑈 통치는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 민생고를 최고 절정에 도달시켰다.

공업과 농촌 경리가 여지 없이 파탄되여 수백만의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식량 기근은 남조선 주민 총수의 태반을 기아의 도가니에 몰아 넣었다.

미제 침략자들과 군사 파쑈 도당은 식민지 략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선진 사상과 과학 기술 연구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오직 청년 학생들의 민족적 및 계급 의식을 말살하기 위하여 침략적인 《반공》 사상, 미국식 생활 양식을 주입하기 위한 식민지 노예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파쑈화와 군사화에 광분하면서 청년 학생들을 값싼 대포'밥으로 끌어 가고 있는바 학원의 군사화와 학생들에 대한 란폭한 탄압, 강제 징집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군사 《정권》 하에서 더욱 심각화되고 있는 생활고와 학원의 모리화, 과중한 학비 부담은 더욱더 학생들의 수학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향학열에 불타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 하고 있으며 겨우 취학한 학생들 중 중도 퇴학하는 학생들은 부지기수이다. 1962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고등 학교 총수의 31%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각각 모집 정원을 미달하였으며 매년 평균 고등 학교에서 7.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과중한 학비 부담을 이겨 내지 못 하고 중도 퇴학한 사실 등은 이를 단적으로 말하여 준다. 더우기 약 20만 명에 달하는 고학생들의 수학난은 더 말할 여지도 없으며 그들 중에서 《채혈(採血)》 학생수가 해마다 증대되고 실망과 비관 끝에 자살하는 참상이 더욱 빈번히 일어 나고 있다.

겨우 학교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청년 학생들은 극심한 취직난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남조선 대학생들의 취직률은 해마다 저하되고 있는바 1956년에 취직률이 30%였다면 1962년에는 5~6%라는 한심한 형편에 있다. 그 나머지는 괴뢰군에 끌려 나가거나 고등 실업자로 전락되고 만다. 이러한 비참한 처지와 남조선의 파국적 현 사태는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낡은 것과 부패한 것을 증오하고 새 생활을 지향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투쟁에로 일떠서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우기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피압박 민족들이 용감히 떨쳐 일어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고 있는 민족 해방 혁명의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성과, 강력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축성과 과학 교육 문화의 비약적 발전, 북반부 청년 학생들의 행복한 생활,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 북반부에로의 계속 귀국, 자본주의 진영에 비한 사회주의 진영의 비할 바 없는 우세를 실지 봄으로써 어느 길로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더욱더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18 년간에 걸친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참담한 후과를 뼈저리게 체험한 남조선 인민들은 날로 륭성 발전하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면서 정치 사상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있다.

최근 남조선의 각계 각층 속에서 반미 감정이 높아 가며 외세 의존을 반대하며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자주 통일과 주체 확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더 많이 늘어 가고 있다.

인민들의 반미 우국 감정을 반영하여 《한국 일보》는 외세에 의하여 국내 정치가 좌우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주 정신, 자주 판단 그리고

자주 처리만이 자주 민족 국가를 자주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하였다. 《부산 일보》는 《경제적 자립 없는 독립은 독립이 아닌》 만큼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아무래도 비극》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자주 의식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하루 속히 성취하여 외원과 외군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 출판물들은 조국 통일의 필요성을 력설하면서 평화 통일을 반대하는 망국노들을 반대하여 《민족적인 념원으로 우리가 갈라진 국토의 통일, 증오보다도 자유와 평화를 호흡하며 살 수 있는 형태의 통일,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작용을 우리가 꺼려야 할 까닭은 없다.》 (《한국 일보》)고 지적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시인은 남조선 인민의 일치한 지향과 념원을 담아 《아아 내 조국》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내 조국아
더는 잠자지 말아 다오.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하다 못해 터럭 하나라도
우리의 것은
우리의 손으로 만져야 한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다뤄야 한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몸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전부의 손으로
우리들의 기를 꽂아야 한다.
그 하늘 우리 기'발 아래서
합창을 하자
랑랑히 조국의 이름을 부르는
단란한 목청의 합창을 하자
아아 내조국
아아 내조국》

남조선의 한 작가는 군사 파쑈 통치를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를 방치해 둔 과거의 그 긴 세월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얼마 동안은 또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려도 우리는 기어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인내할 수 없는 다급한 시간이 오면 그 때는 아무런 약속이 없이 터질 것이다.》

남조선의 어느 대학 졸업생은 방송을 통하여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을 하면서 《회상기가 나의 사상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고 다른 참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여론은 다만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완강한 투쟁에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의 자립에 가해지는 압력에 좌시할 수 없다…우리는…참된 안정을 위하여 기백 있는 저항을 펴야 한다.》 (《부산 일보》)

이렇듯 청년 학생을 포함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팽배히 일어 나고 있는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조국 통일에 대한 지향은 공화국 북반부에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튼튼히 구축하고 공명 정대한 통일 방안을 제시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이 남반부 인민들 속에 더욱 깊이 침투되고 그것이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자체의 력량을 결속하면서 《호기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교량적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남조선에서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은 더욱 급속히 발전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3

오늘의 국내외 정세는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의 발전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 혁명에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남조선의 청년 학생 운동도 새로운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4월 봉기 이후 남조선 청년 학생 운동은 미국 《원조》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는 《신생활 계몽 운동》,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하며 《총장 서리》와 《재단 리사장》 등 미국인을 쫓아 낸 《연제 대학》 학생들의 투쟁, 외세 의존과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남북 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운동 등 투쟁의 예봉을 더욱더 미제 침략자에게 돌리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청년 학생 운동이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옳게 파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 정변》 후 미제와 군사 파쑈 분자들의 야수적 폭압으로 인하여 일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침체 상태에 처하여 있었으나 날로 앙양되고 있는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함께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미제 야만들의 《파주 린치 사건》을 계기로 《고려 대학교》 학생을 비롯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군사 파쑈 도당들의 삼엄한 계엄령과 가혹한 탄압에도 굴함이 없이 공개적인 반미 시위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일시 미제와 군사 파쑈 독재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것이나 11월에 있었던 《학교 정비령》 반대 투쟁 등은 어느 계층의 투쟁보다도 가장 대규모적이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완강하게 진행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 형태의 투쟁 건수가 작년도 남조선 전체 투쟁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남조선의 청년 학생 운동은 그 량적 측면보다도 질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 운동의 중심이 4월 인민 봉기를 계기로 대학에 옮겨진 것은 사실이나 《정변》 이후 학생 운동에서 이것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작년도 학생 투쟁에서 대학생들의 투쟁 건수는 34 건으로서 전체 학생 투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지난 기간의 투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혁명 투쟁에 나선 남조선의 선진적 청년 학생들은 자기 대렬을 더욱 정비 강화하며 점차 혁명의 기본 군중과 련계를 가지면서 투쟁을 더욱 조직화하고 있다는 사정이다. 남조선의 혁명적 청년 학생들은 합법적인 제 방법과 수단들을 리용하면서 학생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4월 인민 봉기에 참가하였던

학생 청년들이 주동이 되여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들은 4월 인민 봉기와 그 이후의 투쟁 경험과 교훈을 살리여 종래의 분산적이며 소규모적인 제 약점을 극복하면서 광범한 학생 청년들을 《전국적》인 련합체에 결속하거나 지방적인 조직에 망라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전국적》인 련합체로 알려지고 있는 《4월 혁명 총련맹》 및 결성중인 《전국 대학생 총련맹》과 지방적인 련합체인 《자유 민주 청년 련맹》 등을 비롯한 일련의 합법적 학생 청년 단체들은 광범한 학생 청년들을 자기 대렬에 결속하면서 학생 운동의 자주성과 나아가서는 반미 반《정부》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고 있다.

4월 봉기 후 조직되여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던 혁신적인 청년 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13 개의 청년 학생 단체를 통합한 《4월 혁명 총련맹》은 발기인 대회에서 군사 《정권》의 제 시책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동시에 발기인 대회에서는 《5.16 군사 정변은 4월 혁명의 계승이 아니다.》, 《5.16 후의 민생고는 조국 광복 이래 최절정에 달하였다.》, 《군사 정권의 주체세력이 군인 본연의 의무를 버리고 정권 장악 야망을 품은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라는 발기취지문을 발표하였다.

《전국 대학생 총련맹》은 군사 《정권》의 탄압과 파괴 분렬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직 정식으로 결성되지 못하였으나 각 대학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면서 학생 운동의 자주성을 위하여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합법적 계기들을 리용하면서 《우리는 농민의 희생 우에 엮어진 력사를 부정한다.》고 하면서 《농어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어촌의 진정한 지도자와 긴밀한 뉴대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또한 군사 파쑈 독재 하에서 합법적인 정치 활동이 극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조건에 대처하여 비합법적 써클과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 각종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반미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 시기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는 것은 《군정》 연장을 무조건 배격할뿐만 아니라 구정치인들에 의한 《민정》도 철저히 반대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배격하고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군정》 연장을 결사 반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월 인민 봉기에 참가하였던 학생 간부들은 박 정희 도당이 《군정》 연장 책동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시 봉기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학생들은 금년 4.19 기념 행사를 《전국적》인 기념 행사로 진행하지는 못 하였으나 자기 학교들에서 독자적인 기념 행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들의 기념 행사는 반미 반《정부》적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였다.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학생들은 4월 19일 독자적인 《기념식》을 가진 후 《군정 연장 반대》, 《미국의 내정 간섭 반대》, 《학원의 자유 보장》 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가두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고려 대학교》 학생들도 독자적인 《기념식》을 가지고 《군정》 연장을 반대하며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 통일을 념원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남조선 학생들은 군사 파쑈 도당의 《군정》 연장을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최근 군사《정권》의 반동적 교육 시책을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도 계속 완강히 전개하고 있다.

서울 《보성 고등 학교》 1,200 명 학생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교원의 복직과 학교 운영에서의 부정 사실을 폭로하고 교장과 교감의 사퇴를 요구하여 전개한 동맹 휴학, 《몽둥이 교육 반대》, 《비민주적 교육 반대》의 구호 하에 전개한 경북 《순심 중, 고등 학교》 학생들의 동맹 휴학, 최근에 있은 《성균관 대학교》 학생들의 학원에 대한 관권의 란폭한 간섭에 항거하여 전개한 시위 등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남조선 학생들은 군사 파쑈 도당을 반대 배격할뿐만 아니라 구정치인들에 대하여도 환멸과 불신의 태도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날의 체험을 통하여 구정치인들이란 모두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연장하며 자기들의 정권 쟁탈을 위하여 싸움을 하는 정상배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다시 대두하기 시작한 구정치인들에 대하여 랭담한 태도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과거와 같이 구정치인들의 리용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구정치인들에 의한 《민정 이양》 책동도 반대하고 있다.

점차 투쟁의 예봉을 미제 침략자에 집중하여 온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반미 감정은 최근 미제가 군사 파쑈 도당의 《군정》 연장 책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더욱더 표면화되고 있다.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자유 수호 궐기 대회》에서 미제에 의한 예속을 반대하여 《우리는 자주 국민이다》라고 선언하였으며 4월 19일 반《정부》 시위에서는 《미국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 말라》라고 요구하여 나섰다.

《고려 대학교》 학생들도 《외세의 어떠한 작용도 반대한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를 배격한다》라고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항거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 배격하면서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조국 통일의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4월 인민 봉기 후 조직되였던 혁신적 청년 단체를 망라한 《국민 주권 수호 련맹》 발기인 대회에서는 《언론 자유》, 《자립 경제》, 《국토 통일》 등의 강령을 채택하고 부패 무능한 외세 의존 세력과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반미 투쟁은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 기세를 더욱 고무 추동하고 있으며 그와 결합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4

남조선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출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미제 침략 군대를 몰아 내고 남조선이 자생 자결하는 길을 개척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청년 학생들을 포함한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남조선 사회의 진보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의 기본적 장애물이다.

18 년간의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누가 정권에 들어 앉든 《군정》이건 《민정》이건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으며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념원인 새 정치, 새 생활도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종식시키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자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남조선 전체 인민들의 공통적인 혁명 과업이다. 이 혁명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년 학생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우선 자체의 대렬을 튼튼히 결속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억압자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 력사는 단결만이 혁명의 원쑤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에서 청년 학생들이 놀고 있는 선구적 역할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청년 학생들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적 단결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그들은 《반공》의 구호 밑에 미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며 각종 반동 사상과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주입하여 청년 학생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어용 학생 단체에 청년 학생들을 강제 망라하고 진보적인 청년 학생 단체를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자기 대렬의 정치적 각성의 제고와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제국주의와 타협하여서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끝까지 투쟁하도록 인민들 속에서 반제국주의 사상 선전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각종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 문화의 전통과 미풍 량속을 고수 발전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청년 학생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학교 내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적 통일 나아가서는 전 남조선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운동 내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학교 간, 지방 간에, 전 남조선적으로 투쟁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만 식민지 노예 교육과 학원의 군사화, 모리화를 반대하며 인민적인 교육 제도를 창설하고 수학 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반드시 반미 반《정부》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청년 학생들은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지만 그 자체의 단독적 력량만으로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4월 인민 봉기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청년 학생들이 맑스-레닌주의 당의 합법적 지도를 받지 못 하고 혁명의 기본 동력인 광범한 로동자, 농민 대중과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 전 인민적 항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어려운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사회의, 3 대 원동력으로서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학생을 포함한)들을 들 수 있다. 학생 청년들은 사회의 어느 한 계급이나 한 계층에 속한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이나 계층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진보적 계급에 합류함으로써 진보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선집 제 1 권, 1954년도 판, 23 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청년 학생들은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혁명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혁명 의식을 제고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일층 강화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그 주구들의 매국적 죄행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며 로동자,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투쟁 구호를 들고 투쟁하며 로동자, 농민들의 반제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전체 애국 력량이 반미 구국 통일 전선에 집결되여 반미 구국 투쟁에 궐기하도록 고무 추동할 것이다.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가 없음으로 하여 4월 봉기에서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지 못 하였으며 군사 파쑈 독재의 수립을 저지시키지 못 하였던 교훈을 살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진보적인 정당 활동의 자유와 특히는 혁명적 당의 합법적 활동의 자유를 전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그의 지도 하에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결된 인민의 힘은 원쑤의 그 어떠한 아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 조국 북반부에는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강력한 인민의 주권과 민족 경제와 문화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며 파국에 처한 남조선 경제와 문화를 부흥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자립적 민족 경제가 건설되였다.

반제 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외세 의존과 사대주의를 견결히 배격하고 민족의 자결 자립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과 함께 불굴의 투쟁을 계속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반드시 승리의 기'발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계급성과 인간성

김 형 일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계급성과 인간성의 통일 문제는 주지되여 있는 사실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사회에서 살면서 사회 밖에 있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사회가 계급으로 분렬되여 있는 현 시대에 살면서 계급 밖에 있을 수 없다.

맑스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항상 사회-계급적 관계를 념두에 두며 인간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계급성을 전제로 한다.

계급성과 인간성을 분리시키거나 그 사이에 어떤 심연을 두려고 시도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거기에 무슨 곡절이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사상적 대변자들은 《초계급적》, 《전 인류적》 인간성, 인도주의에 대하여 항상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이며 비인간적인 본성을 은폐하기 위해서이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로동계급과 각국 인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 압박, 유린, 강요로서 특징 지어진다. 제국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인간적 보람》과 《행복》을 찾는다.

자신들의 행복을 타인의 고통과 불행 우에 수립하는 것—이것은 인간성이 아니라 비인간성이며 야만성이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이러한 계급적 본질을 은폐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것이 바로 《초계급적》, 《전 인류적 인간성》에 대한 《리론》이다.

《초계급적》, 《전 인류적 인간성》—여기에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계급성이 있다.

맑스주의의 간판을 든 자들이 《초계급성론》을 들고 나온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 자신이 수정주의에로 전락하였으며 제국주의의 노복으로 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따름이다.

어떤 나라에서 나온 《대걸작》의 영화에서는 한 녀공산당원이 반동 계급의 군관에게서 갑자기 그 어떤 《인간적인 매혹》을 느끼고 《천연적 힘》에 의하여 《사랑》 관계를 맺는 《고상한 인간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영화에서는 적들의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마치 그 어떤 《인도주의적 배려》가 베풀어지는 듯이 묘사되고 있다.

이 작품들은 그들 속에서만 《대걸작》으로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다. 그 작품들은 제국주의 시장에서도 대호평을 받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함

께 기뻐하며 함께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다!

그러한 작품과 그러한 선전이 대중의 머리를 무슨 망태기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명백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그것이 누구를 돕고 있는가 하는 것도 명백하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인간성,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성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계급성과 인간성은 통일되여 있다고 간주하며 자기의 계급성을 은폐하지 않는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계급성을 은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들의 계급성이 인간성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곧 최고의 인간성으로 되기 때문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현대 사회의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으로서 자기 계급의 해방 뿐만 아니라 모든 피착취 근로 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또 모든 피착취 근로 대중을 해방함으로써만 자기 계급을 해방할 수 있다. 프로레타리아트는 한 착취 형태를 다른 착취 형태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착취 관계를 근본적으로 없애 버리려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근절하고 사회적 평등을 확립하며,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하며, 자연을 정복하며, 인간의 전면적이며 조화된 정신적 및 육체적 발전의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인간에 대한 이 이상의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배려란 있을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성—이것은 곧 최고의 인간성을 의미한다.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를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이것만이 참으로 진정한 인도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계급성과 인간성, 인도주의는 통일된 전일체이다. 다르게는 리해될 수 없다.

* *

그러면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성과 인간성의 통일은 무엇에서 표현되는가?

그것은 우선 자기 계급과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헌신적 복무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서 표현된다.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계급과 피착취 근로 대중에 대한 사랑, 복무 그리고 그들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제 1 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혁명의 선두 대오이며 핵심 대오인 그들의 역량이 굳건히 통일되고 단결되여 있음으로써만 혁명을 성과적으로 령도해 나갈 수 있다.

그들은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동지애와 집단주의적 규률 속에 자기들의 생활 질서를 세운다. 개인의 리익은 집단의 리익에 복종된다. 그들은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적 투쟁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동지들에 대한 배려와 단결은 결코 무원칙한 가족주의적 융화

나 타협과는 다르다. 그들은 자신과 동지들의 잘 못, 그릇된 경향에 대해서는 서슴 없이 비판하고 호상 비판하는 원칙적 단결의 립장에 서 있다. 진정으로 단결을 원할진대 대렬 내에 불건전한 요소가 섞이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을 감싼다는 것은 결국 종처를 더욱 곪게 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것은 오히려 더욱 엄중한 후과를 면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반당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은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종파'군들이 제때에 청산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큰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종처는 빨리 발견하고 수술해 버릴수록 유기체의 성장을 더욱 촉진한다.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동지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지의 결함을 자신의 결함과 같이 아파하고 그를 극복해 주기 위하여 함께 방도를 찾아 내고 도와 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이것은 철저한 생활 규범으로 되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당 생활 총화는 그러한 생활적 규범의 중요한 형식이다.

또한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 널리 발양되고 있는 인간 개조 운동에서도 그것을 력력히 찾아 볼 수 있다.

계급적 원칙에서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며 또한 동지들의 결함을 고쳐 주기 위하여서라면 자기 희생적으로 노력하는 여기에 바로 계급성과 더불어 진정한 인간성이 표현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대중과 단결하고 그들을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로동 계급의 가장 가까운 형제인 농민과 동맹을 맺으며, 모든 피착취 근로 대중을 태우치고 단결하여 그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여기에 계급성과 인간성의 통일이 있다.

각계 각층 군중을 믿어 주고 아량 있게 포섭하는 것은 그들의 고충을 제때에 해결해 주는 것으로 되며 진정한 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안착되여 자기의 모든 정열을 새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동시에 그들을 당의 편에 튼튼히 서게 하고 남반부 형제들과 모든 피착취 대중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더욱 헌신하도록 하게 하며 대중으로부터 계급적 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게 한다.

당원들과 천리마 기수들이 군중 속에서 이신작칙하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계급 의식으로 그들을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통일 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통일 단결이 더욱 강화될 때 대중은 당의 정책을 자기의 리념으로 더욱 철저히 받아 물고 혁명 과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성과 인간성의 통일은 또한 계급적 원쑤를 철저히 증오하고 그와 끝까지 투쟁하는 데서 표현된다.

자기 계급과 근로 대중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철저한 증오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대중을 사랑한다면 그를 착취하며 압박하는 계급, 계층을 응당히 증오해야 하며 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 버리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이것이 피압박 대중에 대한 사랑이며 그들이 참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인도주의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1930 년대부터 우리 인민을 착취 압박하는 일제를 반대하여 15 여 성상이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또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후에는 우선 일제 잔재 세력 및 그와 결탁한 친일 주구들, 지주들을 반대해서 투쟁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인민 대중을 해방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 대중과 더불어 미제의 강도적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고수하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는 실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조국 남반부는 여전히 미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 놓여 있다. 또한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자본가, 지주 계급이 인민 대중을 계속 착취 압박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사적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먼 거리가 있으며 그 간에는 여러 가지 간고한 투쟁과 로정이 가로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수정주의자들은 혁명의 간고성 앞에서, 제국주의의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는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거나 혁명의 전취물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숭고한 계급적 사명의 포기이며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포기이다.

우리에게는 변절자들에게 주는 전투적인 프로레타리아트의 노래가 있다.

…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

우리는 변절자들—우경 기회주의자, 수정주의자들을 증오하며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조국 남반부에서 미제를 내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세계에서 제국주의가 완전히 타도되고 착취와 압박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에 대한 증오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오직 견결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남반부 인민들과 압박 받는 모든 나라의 피착취 근로 대중을 종국적으로 해방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진정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 *

제국주의자들, 그 앞잡이 수정주의자들이 제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생활은 날이 갈수록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성이 최고의 인간성이라는 것을 더욱더 진리로 증명해 줄 따름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성과 인간성의

통일은 그들의 력사적 사명이 결실을 보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사회주의 건설 실천 행정에서 빛나게 확증되고 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실천적 활동에서 언제나 인민 대중의 리익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원칙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완전히 청산되였고 모든 근로 대중에게 일하고 배울 권리와 정치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가 보장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 계급의 위업의 승리는, 아사의 공포에 떨면서 착취자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 고통스럽고, 굴욕적이고, 인간 증오적인 현상을 영원히 가시여 버렸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전면적 기술 혁명에로 대중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리익 및 그의 증대되는 물질적, 정신적 요구의 충족과 같은 고상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초 우에 서로가 벗으로, 형제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광범하게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있으며 자기의 소질과 창조적 능력을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마음껏 발휘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막벌이'군, 머슴'군들이 오늘은 정치가로, 기사로, 의사로, 과학자, 예술인들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대중의 암담한 몽매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상들과 인류의 천재가 이룩한 과학과 문화의 모든 빛나는 재보들을 보통 사람들에게 복무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이 문화적 창조의 역군으로 등장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려고 하며 이러한 사회를 통채로 삼키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각성과 증오를 높임으로써 이 진정한 인도주의의 길을 확고히 고수하며 이 길로 변함 없이 전진하도록 근로자들을 부단히 교양하여야 한다.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방법으로서의 키잡이

리 정 호

오늘 우리 당은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며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 역할을 높일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당 발전과 혁명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사회주의 건설은 우리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이며 우리 당의 가장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최근 년간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도 당 위원회를 비롯한 지방 당 조직들이 해당 지역 내의 생산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지방 당 조직들의 기구를 강화하고 큰 공장 당 위원회들을 도 당 위원회에 직속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특히 대안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며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의 역할을 보다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이 취한 이 모든 조치는 혁명 과업 수행에서 당 위원회들의 키잡이 역할을 높이며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방법을 완성함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 위원회의 키잡이는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유일하게 정확한 당적 지도 방법이다.

그것은 당 위원회의 키잡이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를 정확히 보장하는 방법으로 되기 때문이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당은 정치적 지도자이며 조직자이다.

당은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그 집행을 지도 통제한다.

당 조직들은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워 가지고 그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동원하며, 당 정책의 집행 여부를 감독하며, 집행 과정에서 발로되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 주며, 실정에 따라 항상 새 방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경제 사업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은 행정, 경제 사업을 대행하거나 그 뒤꼬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

만일 당 일'군들이 행정 일'군과 함께 춤추며 그들의 사업을 대행하게 된다면 당 정책 집행을 지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사업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또 잘 못 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간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행정을 대행하면 당은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당이 행정을 대행하게 되면 당 사업을 행정화하며 정치 사업을 못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 일'군들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며 결국 당 사업도, 행정, 경제 사업도, 다 잘 하지 못 하게 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당이 행정의 뒤꼬리를 따르는 것은 · 자기의 지도적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 경제 사업은 자연 방임 상태에서 방향을 잡지 못 하고 갈팡질팡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 사업 자체도 목적 지향성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또한 당은 경제 사업에 대한 기술 실무적 지도를 주는 것으로써 자기의 당적 지도를 대치시켜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필경 당을 행정화하고 그의 령도적 기능을 거세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 모든 편향들이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방법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와의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당 위원회들이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키잡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 위원장과 행정 일'군과의 관계는 비유해 말하면 배에서 키 잡는 사람과 노 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 행정 일'군은 앞에서 노를 젓고 당 위원장은 뒤에 앉아서 키를 잡고 좌로 우로 하고 지시하면서 방향을 옳게 잡아 주어야 배를 곧바로 몰고 갈 수 있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282 페지)

키잡이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적 지도를 옳게 주는 것이다.

방향적 지도란 당 중앙 위원회의 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대상 기관들의 실정에 적응한 사업 방향과 실행 방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키잡이에서 방향적 지도가 가지는 의의는 그것이 대상 기관 일'군들에게 명확한 투쟁 목표를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서 당적 요구를 정확히 알고 그에 립각하여 자기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끌고 나가며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당 정책 관철에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이것은 당 위원회들로 하여금 당의 정책적 방향에 립각하여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당의 의지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방향적 지도는 사업 성과의 전반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방향적 지도를 옳게 주는 것만으로써 키잡이의 역할을 원만히 보장할 수는 없다.

키잡이는 방향적 지도에 방법적 지도를 따라 세울 것을 요구한다. 당 위원회들은 대상 기관들에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시된 방향에 기초하여 당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를 심화시켜야 한다.

즉 방향을 제시한 다음에는 뒤따라 개별적 단위에 침투하여 대중과 함께 집행 과정에서 걸린 고리들을 알아 내며 그를 풀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강구하며 그것을 또 다시 군중 속에 해설 침투시키면서 그의 실행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등 사업을 부단히 반복하며 지도를 심화시킴으로써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듯 방법적 지도는 방향적 지도를 안받침하며 당 정책의 집행적 장악을 옳게 하게 함으로써 그의 관철을 철저히 보장하게 한다.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 이것은 키잡이에서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잡이에서는 그 어느 하나에 치중하여서도 안 된다.

당 위원회들은 이 두 측면을 다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만일 이를 명심하지 않고 방향적 지도에만 치중하고 방법적 지도를 홀시하는 당 위원회들이 있다면 그는 필경 실속 없는 말공부를 하는 데 그치고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또 이와 반대로 방법적 지도에만 치중하고 방향적 지도를 홀시한다면 그러한 당 위원회들은 사업에서 수공업적 방법을 면치 못 할 것이며 당 정책적인 장악을 옳게 하지 못 함으로써 그의 집행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당 위원회들은 키잡이의 역할을 옳게 할 때만이 행정을 대행하거나 그의 뒤꼬리를 따르는 일체 현상들을 극복하고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원만히 수행하게 될 것이며 광범한 대중을 경제 건설에 인입하게 될 것이다.

키잡이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유일하게 정확한 당적 지도 방법으로 되는 리유는 또한 이것이 혁명적 군중 로선에 기초한 우리 당의 지도 방법으로 되기 때문이다.

키잡이는 군중 속에 들어 가 실정을 료해하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방향을 바로 잡으며 군중을 발동하여 당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지도 방법으로서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령도에 의하여 수행된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당적 지도에서 군중 로선의 관철이다.

《집체적 지도라는 것은 광범한 군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그 지도 기관 전체 성원들의 적극적 참가 밑에 모든 문제를 심의, 처리하며 모든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하여 사업이 독단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392 페지)

집체적 령도의 우월성은 지도 기관 성원들의 지혜와 경험에 대중의 지혜와 경험을 옳게 결합시키는 데 있다.

당 위원회들은 해당 부문 사업을 잘 알며 대중의 의사를 옳게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군들, 특히는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많이 망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 위원회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대중과 함께 토의하며 그들의 창발적 지혜를 종합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집체적 령도를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정황에 기초한 정확한 실행 방도들을 강구할 수 있으며 그의 실행에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제때에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이것은 키잡이가 혁명적 군중 로선에 기초한 당적 지도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당 위원회의 키잡이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키잡이의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키잡이를 옳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일'군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것은 일'군들의 당 정책에 대한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이악하게 달라 붙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매개 일'군들의 각오와 결의가 잘 되여 있고 어떠한 애로와 난관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 정책을 튼튼히 장악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면 점령하지 못 할 요새란 있을 수 없다.

당적 사상 체계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당 정책을 무조건 옹호 지지하며, 그의 집행을 지체 없이 조직하며,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들을 제때에 타개

하며, 그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부단히 사업을 포치하고 조직하여 끝장을 내고야 마는 일'군들의 혁명가적 기풍을 통하여, 실제 사업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당 위원회들은 일'군들 속에서 당 정책 학습을 부단히 강화하며 당 정책을 걸서 대하거나 제기된 애로와 난관 앞에서 겁을 집어 먹고 동요하는 현상들과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하며 어느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 정책에 튼튼히 립각하여 사업하도록 교양하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대중과 함께 의논하여 그 해결 방도를 찾아 내고 완강성과 인내성을 다하여 제기된 과업들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키잡이를 옳게 보장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지도에서 집체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당 위원회들은 집체적 지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 경제 사업에서 제기된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당 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실정에 적응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집체적 지도의 성과는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 문제는 집체적 지도의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당 위원회는 당에 무한히 충실한 당성이 강하며 능력 있는 일'군들로 꾸려져야 한다. 즉 당 정책을 견결히 수호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 사업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군들로 꾸려져야 하며 특히는 직접 생산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전문가들, 혁명 사업에서 단련된 로련한 일'군들과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젊은 일'군들을 옳게 배합하여 꾸려야 한다.

그러나 집체적 지도는 당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매개 위원들로 하여금 맡은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끔 일상적으로 준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당 위원회들은 위원들의 정치 실무 수준과 령도 예술을 높이도록 당 정책 교양과 기술 실무 및 사상 문화 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적 분공에 의한 일상적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들로 하여금 어떤 복잡한 문제 해결에서도 당적 원칙을 고수하며 당 정책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당 위원회들이 키잡이 역할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한 단위에서 경험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반에 일반화하는 사업 방법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 방법은 지도에서 일반성과 구체성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가장 훌륭한 사업 방법이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밀접히 결부시키며 매개 부문, 매개 단위들에서 전형을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전반을 추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실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실천적 경험은 키잡이에서 이 방법을 견지할 때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안 전기 공장 당 위원회는 일반적 포치에 뒤'이어 해당 사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적인 단위에 들어 가 아래 일'군들을 도와 로동자들과 함께 사업하면서 이미 포치된 사업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그를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구체적인 실행 방도를 제시하며 여기에서 창조된 경험을 전반에 일반화함으로써 막힌 고리를 제때에 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불러 일으켜 제기된 경제 과업을 성과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당 위원회들은 이러한 경험에서 배우며 키잡이에서 이 사업 방법이 가지는 의의와 우월성을 옳게 인식하고 실지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키잡이에서 중심 고리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공장의 규모가 커졌고 내부적 련관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과업이 련'이어 제기되는 조건 하에서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다.

현실은 적은 력량과 적은 설비로써 많은 생산을 하며 해당 시기 당과 국가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부터 신속히 제때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일'군들이 사업에서 선후차를 구별하지 못 하고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로력과 자재의 막대한 랑비를 초래할 것은 물론 협동 생산에 요구되는 절실한 수요들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 함으로써 전 인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키잡이에서 중심 고리 원칙을 관철할 데 대한 요구가 특별히 제기되는 또하나의 리유는 중요한 과업이 련'이어 떨어지는 데 당 위원회들이 자체의 력량과 사업 실정을 타산함이 없이 한 사업을 포치하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지시하는 식으로 일한다면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로 하여금 사업에서 중심을 잃어 버리고 그 어느 것부터 하여야 옳은지 분간하지 못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당 위원회들은 제아무리 규모가 크고 실정이 복잡하고 제기되는 과업이 많다 하더라도 결코 지도에서 피동에 빠지거나 산만성을 나타내지 말아야 하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욱더 사업에서 선후차를 똑똑히 가려 내며, 중심을 틀어 쥐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여 한 고리씩 해결하여 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는 우리 당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 하여 당 내부 사업을 홀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 사업의 기본은 당을 강화하는 데 있다. 왜냐 하면 당을 강화함이 없이는 군중을 당 주위에 단결시킬 수 없고 군중을 당 주위에 단결시킴이 없이는 당면한 경제 과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 단체들의 사업의 중심은 당,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사회 단체들에서 일하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며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며 대중을 혁명 과업의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김 일성 선집 제6권, 267 페지)

그렇기 때문에 당 일'군들은 당을 강화하는 사업에 중심을 두고 경제 사업을 이에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당 위원회들은 집체적 령도와 키잡이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깊이 연구하며 이를 실제 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령도 방법을 더욱 세련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새로운 자재 공급 체계와 협동 생산의 강화

김 영 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 발전의 현 단계에 적응한 새로운 자재 공급 체계가 확립된 때로부터 이미 1 년 반이 지나 갔다.

생활은 이 체계가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 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공업 관리의 주요한 구성 부문을 이루는 자재 공급 분야에서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김 없이 확증하였다.

새로 확립된 자재 공급 체계의 우월성으로 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 기업소 간의 생산적 및 공급적 련계가 일층 긴밀하여졌으며 협동 생산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　　　*

생산에 대한 자재 공급 체계의 개편은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 운영 체계의 완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자재 공급 사업이 노는 역할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공업이 째여지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 따라서 부단히 장성하는 자재에 대한 수요를 계획적이며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계획적 생산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 과정은 생산의 세 가지 요인인 로동력, 로동 도구 및 로동 대상의 작용 과정이다.

생산의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계획적이며 균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산이 정상화될 수 없으며 현대적 생산의 조건에서 막대한 사회적 랑비가 조성될 수 있다.

례컨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높은 기술과 로동력이 있어도 원료, 자재들이 제때에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산 설비들은 효과적으로 리용될 수 없으며 로동력은 랑비되게 된다.

생산에 리용되는 원료, 자재는 활용 상 설비 및 로동력과는 다른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원료, 자재는 그 소비의 특성으로 하여 기계 설비나 로동력과는 달리 매 생산 단위에서 완전히 소비된다. 이것은 계획적 생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원료, 자재들이 매일 매시 생산 현장에 부단히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신 운동이 강화됨으로써 공업이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더욱 발전하고 생산물의 품종들이 늘어 나고 그 질이 급속히 제고되고 있는 현실은 공급되여야 할 자재의 절대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류, 규격, 재질에 대한 요구도 증대시켰다.

특히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째여지고 그 부문들 간 및 공장들 간에는 협동 생산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필요한 각종 종류의 규격, 재질의 자재를 종합적으로 보장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협동 생산은 적지 않게는 자재 공급 상에서의 련계라고 할 수 있다.

협동 생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망라된 수요자 기업소와 공급자 기업소들의 생산 능력을 잘 타산하여 계획을 맞물려 주고 협동 생산을 위한 공급의 시간성을 보장하며 자재를 종류, 규격, 재질별로 정확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

결국 협동 생산의 강화는 자재 공급 체계의 매개 고리가 민활히 움직임으로써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재 공급 체계는 협동 생산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적으로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움직이는 조건에서 자재를 종합적으로 제때에 공급하지 못 하면 한 부문 한 고리 뿐만 아니라 협동 생산에 저해를 줌으로써 련관된 다른 공장,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재 공급 사업을 잘 조직하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부단히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업의 련쇄된 모든 부문과 단위들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며 생산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성 및 관리국, 기업소의 관리 운영 체계를 혁명적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자재 공급 사업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강조하면서 《자재 공급은 계획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 조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자재를 원만히 대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조직 사업은 없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7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　　　*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자재 공급 사업의 개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변천되는 새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게 그 체계를 부단히 완성해 왔다.

김 일성 동지의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를 통하여 확립된 새 자재 공급 체계는 오늘 우리 나라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서 협동 생산을 강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새로운 자재 공급 체계가 협동 생산 강화에서 거대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 정형과 자재에 대한 수요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는 체계라는 데 있다.

종래의 체계 하에서는 성, 관리국이 기업소들에 자재를 배정하여 준 다음에는 그 인수 및 보장은 직접 해당 기업소가 책임졌다.

이것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책임 한계를 명확히 가를 수 없게 하였으며 다수 경우에 자재 공급 사업이 우연성을 면치 못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재 공급 사업을 책임진 사람들이 공급자와 소비자 기업소의 구체적인 실정을 잘 알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새 체계 하에서는 부문별로 조직된 유일한 자재 공급 기관인 상사가 분창고를 통하여 산하 기업소에 원료와 자재를 현물로서 기대 옆에까지 날라다 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소가 생산한 협동 생산 제품을 해당 기업소에 공급하는 사업까지 직접 책임지게

되였다.

오늘 자재에 대한 공급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오직 자재 상사뿐이다. 이제 와서 원료 자재에 대하여 말한다면 자재 상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류통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성, 관리국의 지도 하에 자재 상사가 생산에 대한 일체 공급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은 자재 공급 체계가 자재의 합리적 리용과 소비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한 반작용을 강화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자재 공급의 중앙 집중적인 유일 체계의 확립은 상사 산하의 분창고들이 현장에 내려 가 자재 공급 계획을 직접 같이 짜 주고 생산 공정에 대하여 깊이 파악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재 보장에 대하여 적극 관심을 돌릴 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하여서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자재 공급 체계는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 가는 체계 즉 성, 국 및 공장, 기업소 관리 일'군들이 생산 현장에 내려 가 모든 일을 직접 지도해 주고 도와 주는 생산 지도의 원칙에 기초하여 청산리 방법을 관철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주고 있다.

이로써 종전 체계와는 달리 새 체계에서는 자재 상사와 산하 공급 기관들이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 일정과 필요한 자재 수요를 통일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되였다.

기계 공업성 자재 상사는 산하의 분창고들을 통하여 해당 기업소의 일정 계획 수행 정형과 자재 확보 정형을 청취하고 지령 체계를 통하여 분창고 간의 련계를 맺어 줌으로써 매일매일 실정을 손'금 같이 꿰뚫고 있다.

지난 1. 4 분기 간에 기계 공업성 자재 상사는 자동차, 뜨락또르 협동 생산품만 하여도 4,000 여 종의 품종을 제때에 공급하였는바 1 개월 이상 생산에 선행시킨 협동 생산품의 비중은 작년 8월 말에 비하여 2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이리하여 기계 공업성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12%로 장성된 금년도 1. 4 분기 계획을 102.7%로 초과 수행하게 되였다.

협동 생산의 조직과 집행에서 새로운 자재 공급 체계가 가지는 우월성의 다른 하나는 그것이 자재를 통일적으로 기동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체계라는 데 있다.

새로운 공급 체계는 자재 상사로 하여금 자재에 대한 생산 및 공급 계획을 틀어 쥐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조건 지어 주었다.

과거 낡은 체계 하에서는 매개 기업소 단위로 자재를 해결하게 되였던 관계로 공급에서 통일성을 기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체결한 두 기업소 간에만 자재를 류통하게 됨으로써 다른 부문 또는 다른 기업소에는 자재가 사장되여 있더라도 그것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기업소들에 제때에 돌려 줄 수 없었다.

오늘 새로 조직된 자재 상사는 직접 기업소들을 대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파견된 인수 추진원과 상사 분창고를 통하여 매일 실적을 장악하며 그에 기초하여 인수 및 공급 지령을 하달함으로써 자재 공급에서 통일성과 기동성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낡은 체계 하에서는 타 기업소에 파견된 출장원들로부터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조차도 기업소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그것을 다시 성, 관리국에 반영하여 해결 받게 됨으로써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되였다.

례하면 과거 체계 하에서는 성이나 관리국이 기업소 자재 재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매달 5일에 받는 《월말 자재 보고》였다. 그것을 전문 부서에서 종합하여 지도부에 제기하여 결론을 받기까지는 실로 오랜 시일이 걸려야 했다.

그런 만큼 이미 현실성을 상실한 그 자료에 기초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이것이 해당 공장에서의 생산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련관된 기업소,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자재 상사의 설치와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지령 체계의 확립으로 하여 종래의 낡은 체계 하에서 수백 명의 출장원들이 담당하였던 자재 공급 사업을 성, 관리국이 산하의 전문적인 자재 공급 기관인 자재 상사를 통해서 공장, 기업소에 그리고 공장, 기업소는 분창고를 통하여 직장에 현물을 날라다 줌으로써 자재 공급의 능동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새로운 자재 공급 체계의 또 하나의 우월성은 자재를 가장 합리적이며 절약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막대한 자재 예비를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장, 기업소에서의 자재 확보의 주요 원천은 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부 예비를 동원 리용하는 데 있다. 즉 자재는 타 인민 경제 부문, 기업소에서 계약에 의하여 인수하는 것과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가지고 있는 자재의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충당된다.

이것은 자재 보장에서 중요한 두 측면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당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부 원천을 동원 리용하는 것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협동 생산에 예견된 자재 공급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 자재 공급 체계는 자재 부문 일'군들로 하여금 현장에 접근하여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고 없는 것은 찾아서 보장해 주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수 많은 물자 예비를 탐구 동원케 하고 있다.

그것은 새 체계 하에서 매 기업소에 있는 상사 분창고가 공장, 기업소 내 매개 직장 및 창고들이 가지고 있는 자재 예비를 정확히 장악하고 있으며 생산 정형을 잘 알고 있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들은 생산 계획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자재의 합리적 리용에 생산자들과 공동의 리해 관계를 갖게 되였으며 자재 상사와 공장 당 위원회 앞에서 자기 활동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보고함으로써 현장과 창고들에 사장 체화되는 자재를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전부문적으로, 혹은 전 공장적으로 취할 수 있게 한다.

자재 및 원료 공급 사업이 원래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성 및 관리국들은 이를 계획적이며 기동성 있게 현물로 직접 기업소에까지, 기대 옆에까지 공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배정된 자재를 기업소들에 쪼개여 주는 것으로 대치하였다. 공장, 기업소에서는 물론 직장들

에서도 사정은 류사하였다.

사실 상 생산 단위인 공장, 기업소들이 자재를 자체로 확보하게 된 종래의 체계 하에서는 관리국들과 기업소들에서 번잡한 지도서 놓음과 전표 놓음, 출장원 수의 팽창은 불가피한 것이였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개편된 새 체계는 복잡한 사무를 대담하게 간소화하고 막대한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종전 체계와는 달리 새 체계는 자재 상사가 해당 부문, 기업소들의 제품 창고와 자재 창고를 직접 장악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에서 협동 생산에 절실한 자재를 체화 사장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제거되였으며 동시에 잠재하고 있는 모든 예비들을 백방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확고히 지어졌다.

이리하여 자재 공급 체계의 개편으로 종전에 사장되였던 많은 자재들이 현실적으로 탐구 리용되고 있다.

이것은 새 체계 하에서 기관 본위주의와 관료주의 작풍이 일'군들 속에서 점차 근절되고 있는 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례하면 기계 공업성 산하 기업소들에서만 하여도 있는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난 1 년간에 8,400 여 톤의 강재를 호상 교류하여 생산에 리용하였으며, 금년도 1.4 분기에는 2,200 여 톤의 강재를 추가적으로 동원 리용하였다.

또한 자재의 합리적 리용은 기업소들에서의 지령 집행 건수의 장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바 1962 년도 상반년에 지령 건수의 76%가 집행되였다면 하반년 총화에서 그것은 98%로 제고되였다.

이와 같이 자재를 합리적이며 절약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부문에서 새롭게 확립된 자재 공급 체계의 우월성의 발현이며 동시에 증산의 기본 담보로 된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자재 공급 체계의 매개 환절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업에서의 협동 생산을 옳게 조직하고 능숙히 집행하는 지령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자재 공급 체계에서 자재 상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중요하다.

자재 상사는 성의 유일한 자재 인수 및 공급 기관으로서 타 성 산하 공장, 기업소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인수한 자재를 통일적으로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자재 상사들은 자재와 협동 제품을 제때에 인수하고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생산 행정에 침투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생산 기간을 단축시키며 오작품을 퇴치하는 등 협동 생산 지령부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상사 일'군들은 협동 생산 계획 작성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생산 행정에 깊이 파고 들어 계획 실행 정형을 료해 장악하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도록 자극해야 한다.

특히 협동 생산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해당한 규격과 치수, 재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가 진 임무는 실로 크다.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작성된 전투 계획에 엄격히 립각하여 자재를 1 개월 이상 생산에 선행시키며 예비 부속품은 3 개월, 협동 생산품은 15 일~1 개월 선행시키는 것은 자재 상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만일 자재 상사가 공급 사업에서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지 못 한다면 생산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 실행에서 파동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새 체계의 우월성을 발휘시킬 수 없다.

다종 다양한 규격과 종류의 자재를 매개 직장들의 작업 조건과 공정 순위에 따라 제때에 공급하자면 우선 자재 공급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생산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자재 공급 계획은 계획부의 월 생산 계획과 기술부의 자재 소비 기준에 의거하여야 하며 공장 전반적 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직하는 생산부와의 련계 밑에 생산 공정의 순위에 따라 각종 자재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계획 초안을 가지고 생산 현장에 내려 가 해당 단위의 생산 정형과 생산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완성하여야 하며 생산 조직의 변동에 따라 기동적으로 보충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자재 수요를 보다 원활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획 수립과 함께 생산자들의 요구에 상응하게 일정한 규격과 강도, 재질 등이 다양한 일체 자재들을 공정 순위에 딱딱 맞물리게 공급하기 위한 자재 공급원들의 능동적인 활동이 안받침 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응당 모든 자재 공급원들이 청산리 방법으로 생산자 대중 속에 들어 가 실정을 손'금 같이 꿰뚫고 있어야 한다.

공급원들이 생산 직장에 침투하여 생산 정형을 체계적으로 료해하며 그에 기초하여 자재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동시에 자재 수공급 사업에서 자기가 받을 자재에만 력량을 돌릴 것이 아니라 협동 생산품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더 집중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계약된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생산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협동 생산을 강화하며 자재 상사가 자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송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재 보장을 담당한 일'군들은 자재가 실지로 어디 있고 얼마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가져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자재가 있다 해도 운반할 수단이 없어 문건 상으로만 받아 놓고 가져 오지 못 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므로 새 체계 하에서 협동 생산 지령부로서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재 상사가 수송 기관들의 제한된 수송 능력을 옳게 타산하여 자재와 협동 생산품을 제때에 수송 공급하도록 사업 조직을 면밀히 하는 것은 당면하게 해결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함께 협동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소들이 모두 기일보다 좀 여유를 두고 일찌기 생산을 끝내여 마지막 공정을 맡은 기업소에 넘겨 주도록 호상 협조와 련대적 책임성을 높이며 맡겨진 과제를 어김 없이 수행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자재 공급 사업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으며 금년도 10 대 과업의 하나인 협동 생산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처지

김 화 천

자본주의의 발전과 로동 계급의 처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로동 계급의 로동 및 생활 조건은 가일층 악화되며 사회적 소득 중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몫은 더욱 적어지게 된다는 것, 즉 로동 계급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빈궁화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명제는 불변의 진리이다.

이 진리를 심오하게 해명함으로써 로동 계급 속에 자본의 야수적인 압제와 착취에 대한 분격을 불러 일으키며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자본의 지배를 청산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욱 단호히 궐기하게 할 수 있다.

온갖 부르죠아 변호론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본질을 외곡함으로써 로동 계급과 광범한 근로 대중의 혁명적 투지를 마비시키며 로동 계급을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서 무장 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부르죠아의 사환'군들은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이 첨예화되고 혁명적 폭풍우가 세차게 휘몰아칠 때마다 《최신 리론》을 날조하여 이 엄연한 진리를 《론박》하며 현실에 도전하여 나선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의 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궁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

자본주의 발전, 그것은 로동 계급들에 대한 미증유의 착취와 무권리의 강화를 의미한다.

제국주의 시기에 독점 자본은 독점적 고률 리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기에 광분한다.

특히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들 내부에서는 고정 자본의 갱신, 경제의 대대적인 군사화, 생산 설비의 현저한 기술적 개선 등과 밀접히 결부되여 자본의 집적과 집중 과정이 촉진되고 있으며 빈번히 래습하는 경제 공황으로 인하여 경기 순환 행정은 만회할 수 없는 불안정 상태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심각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로동 계급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처지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현대적 기술 수단들의 도입에 기초하여 취업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자본의 축적과 기술적 《진보》는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 시간은 단축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루진적으로 증대되는 모든 재부들은 전적으로 극소수 독점 자본가들에게 횡취 당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한 가지의 실례만 들어도 그것은 명백하다. 즉 미국에서는 1919년에 가공 공업에서의 잉여 가치률이 253%였다면 1957년에는 그것이 무려 397%로 제고되였다. 이는 로동자가 하루 12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로동 시간과 잉여 로동 시간 간의 관계가 1919년에는 3 시간 22 분:8 시간 38 분이였다면 1957년에는 그것이 2 시간 44 분:9 시간 16 분으로 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로동자들은 로동일의 5 분의 1에 해당한 시간만을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는 로동 생산력의 발전은 로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로동해야 하는 로동일 부분을 단축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로동자가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로동할 수 있는 로동일의 나머지 부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론》 제 1 권 1 분책, 461~462 폐지)는 맑스의 유명한 명제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확증하여 준다.

생산 과정에서의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는 특히 로동 강도의 제고에서 더욱 뚜렷히 찾아 볼 수 있다. 자본가들에게 점유되여 있는 현대적 생산 설비들의 복잡한 기술 공정과 급속한 조작 속도는 로동자들에게 고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긴장을 강요하고 있다. 널리 보급되고 있는 각종 《경영 합리화》란 사실 상 땀을 짜내는 《과학적 방식》의 현대판들인 것이다.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도 인정하는바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는…로동자들이 팔과 팔'굽, 그리고 잔등을 번갈아 움직이면서 엄격히 규정된 동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여 있다. 일본에서는 로동자들의 로동 전 과정을 분초로 측정하며 초인간적인 긴장 상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수목 일치 조사법(手目一致調査法)》을 널리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결과 로동자들 속에서는 로동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직업 병자와 불구자가 계속 늘어 가고 있다.

취업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동시에 실질 로임 수준의 저하, 따라서 로임과 로동력의 실제 가치 간의 배리가 확대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동력의 가치는 로동자들의 사회 력사적으로 형성된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 자료들의 가치의 총체를 대표한다.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자들의 실질 로임은 로동력의 정상적인 재생산에 요구되는 최저한의 생활 상 수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간격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상품 가격과 집세를 비롯한 각종 료금의 급속한 등귀를 반영하는 생계비의 증대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다.

1953년의 수준을 100으로 할 때 1961년 현재의 생계비 지수는 다음과 같다.

미국…112　　서부 독일…114
영국…125　　일본 … 114*
불란서…137

(*는 1960년 현재 수준)

로동자들의 생계비 등귀에서 특히 현저한 것은 집세의 등귀이다. 집세는 로동자들의 생계비에서 대단히 큰 비중(미국에서는 31%, 서부 독일에서는 23%, 노르웨이와 화란에서는 각각 25%와 24%에 달한다)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집세가 뉴욕에서는 1961년 한 해 동안에 평균 54%나 올랐으며, 영국에서는 1956~1962년에 40%나 올랐다.

생계비의 이러한 급속한 등귀는 로동 계급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쟁취된 로임의 부분적인 인상마저 대부분 수포로 돌아 가게 하고 있다. 그것은 생계비의 장성이 로임의 인상을 현저히 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실질 임금의 저하를 규정하는 기본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로동자 매인당 실질 임금 수준이 1944년에 비하여 1960년에는 96.3%로 저하되였으며, 불란서에서는 1957~1961년에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전쟁 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형편에 있다.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실업의 증대에서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실업—이것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현상이며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이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사회적 재난의 하나이다.

전후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취업의 가능성이 심히 제한되고 있으며 실업은 방대한 규모에서 계속 만성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우선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전후 생산의 완만한 장성에 비하여 자본의 기술적 구성, 더 나아가서는 그의 유기적 구성이 상대적으로 빨리 장성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급속한 장성은 취업 로동자들의 로동 강도의 제고와 결합되여 기업의 대량적인 불완전 조업 상태를 상시적인 현상으로 되게 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 공업 총 생산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지난 1 년간 공업 기업소들의 조업률이 전체적으로 85%를 초과하지 못 하였다. 영국에서는 1962년 6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700 개의 대회사들 중 조업 부진 상태에 있는 것이 무려 66%나 되였다. 서부 독일과 일본에서도 사태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매년 취업률은 아주 보잘 것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한 자리에 답보하고 있으며 지어는 일시 감소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가공 공업과 같은 중요한 물질적 생산 분야에서 더욱 심하다. 례컨대 미국과 카나다의 가공 공업에서의 취업률은 1953~1961년에 각각 7%와 .6%씩 저하되였다.

실업자 대렬의 증대는 현 시기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조장되는 심한 취업난과 함께 다른 편으로는 일련의 부문들에서 자동화와 기타 기술적 개선에 기인하는 취업 로동자들의 구축과도 크게 관련되여 있다. 일례로 미국 철도 부문에서는 자동화의 결과 1948~1961년에 46%의 로동자들이 해고 당하였다.

최근 년간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실업자 수의 장성 동태는 다음과 같다.

	1948년	1961년
미국	100	232. 6
영국	100	111. 1
불란서	100	142. 3
일본	100	162. 5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실업자 대렬은 례외 없이 급속하게 늘어 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현재 1,000 여만의 로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대통령 케네디조차 금년 3월 국회에 보낸 자기의 《교서》에서 실업 문제가 《첫째 가는 경제 문제》로 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로동력에 일'자리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비명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만성적인 대중적 실업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실업자들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자리를 가진 로동자들의 취업 상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로임의 전반적인 저하와 로동 조건의 악화 등을 초래케 하고 있다.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식민지 예속 국가, 그리고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처지는 그에 비할 바 없이 비참하다. 이 나라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외국 독점 자본이 우세하며 구식민주의와 결탁된 신식민주의는 이 나라들의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높은 리윤을 짜내고 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에서의 로임 수준은 극히 낮으며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로임은 구라파인 로동자들의 로임에 비하여 콩고에서는 64 분의 1, 남아프리카 련방에서는 20 분의 1, 북로데시아에서는 17 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는 또한 취업의 가능성이 보다 희박하며, 실업자 대군이 보다 광범하게 존재한다.

소농 경리에 부착되여 있으나 거기에서 최저의 생활 자료도 보장 받지 못하는 방대한 잠복적 과잉 인구들은 공업 발전이 거의 질식 상태에 있는 관계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나라들에서 실업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데만 있지 않다. 그것은 또한 이 나라들에서 실업의 장성이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그것을 수배나 릉가하고 있다는 데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 계급의 처지에 비하여 식민지 예속 국가 및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처지는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 과정에서의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률의 증대, 로동 강도의 제고, 실질 임금의 저하, 만성적인 실업 군중의 증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처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증대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독점 자본이 뒤흔들리는 저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탱해 보려고 발악하면서 바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조치》들에 광범히 매여 달리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편으로는 독점 자본의 변호론자들

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국가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각종 무근거한 환상들을 류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대독점 자본가들이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독점적 고률 리윤을 짜내며 사회 경제 생활의 모든 분야들에 대한 전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기구를 장악 리용하는 다양한 체계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지배적 독점체들이 국가 기구를 발동하여 실시하는 각종 《조치》란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로부터의 강권적인 수탈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명백한 것은 현대 부르죠아 국가가 자기 경리(소위 《국가 소유》)에 고용된 로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자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독점 자본의 국가는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독점 자본의 국가는 총체적 자본가로, 대금융 자본의 집할 사무소로 행세하면서 조밀한 착취의 그물을 한 손에 거머쥔 세련된 강도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점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이 국가는 독점적 고률 리윤의 취득을 위한 유력한 기구로 되는 것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로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 관계를 기초로 하면서도 국민과 사회의 관계라는 가장된 형태로 나타나며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의 매개 고리들—생산, 분배, 교환, 소비—에 빈틈 없이 개재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런 만큼 착취 관계는 확대되며 심화되는 것이다.

로동자들은 우선 국가의 각종 조절 정책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세에 의해서 가혹한 수탈을 당하고 있다. 조세의 공간을 통하여 부르죠아 국가 예산은 날이 갈수록 국민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독점 자본의 처분에 넘기고 있으며 그들의 리익에 복무하도록 재분배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조세의 기본 담당자는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로동 계급과 농민이다. 로동자들의 로임에서 세금으로 공제 당하는 부분은 매우 크며 또 계속 증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1년에 로임에서 개인 소득세로 지출된 부분의 크기가 19%에 달하였으며 이태리에서는 현 예산 년도 국가 예산 총액 중에서 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4.4%에 달하고 있다. 서부 독일에서는 조세액이 매년 15~20% 증가하고 있다.

국가 수중에 장악된 이러한 거액의 조세는 주로 군사비 지출의 형태로 대독점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데 리용되고 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국가 예산 지출의 80% 이상이 군사비로 되여 있다.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도 그것은 국가 예산 지출의 절반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부르죠아 국가는 이러한 군사비 지출을 통하여 대외 침략과 팽창 정책을 감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경제의 군사화를 진행함으로써 격심한 조업 부진 상태에 있는 대독점 자본에게 주문(주로 군사 주문)을 하고 있으며 숱선 방대한 상품의 구매자로 되고 있다. 근로자들을 희생으로 한 경제의 군사화는 독점 자본을 위한 중요 치부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로동자들은 조세(그것은 직접세 뿐만 아니라 간접세도 포함한다)와 함께 기타의 《조절》과 《통제》 조치들의 중하도 걸머지고 있다. 례컨대 로임 수준의 렵법적인 제한, 주요 소비품들의 전매와 배급제, 국채의 람발 등은 모두다 로동자들을 추가적으로 착취하는 공간들인 것이다. 이러한 《조절》과 《통제》 조치들은 광범한 로동자 대중을 착취하는 데서 신축성이 큰, 보편적인 공간으로 널리 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현대 부르죠아 국가의 이러한 《조절》과 《통제》의 착취적 본질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로동자들에게는(부분적으로는 농민들에게도) 군사적 강제 로동을, 은행가와 자본가들에게는 락원을 조성하도록 〈경제 생활을 조절하고 있다.〉 그들의 조절은 로동자들을 굶을 지경에까지 〈조이며〉, 자본가들에게는…더 높은 리윤을(비밀적으로, 반동적-관료주의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전집 제 25 권, 419 페지)

로동자들은 국가 소유의 유지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착취의 중하도 걸머지고 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국유화에 따르는 보상비, 국영 경리 운영 상의 결손, 로후한 설비를 갱신하는 데 소요되는 방대한 자금은 사실 상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소유 자체가 하나의 전일적인 착취 체계로 되고 있는 것이다.

전후에 부르죠아적 국유화가 비교적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영국에서 로동자, 사무원의 조세액이 무려 9 배 이상이나 높아진 것은 이를 잘 말하여 준다.

조세를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을 통하여 실시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조치》들은 결국 로동자들의 필요 로동 부분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로동자들은 직접 자기를 착취하는 자본가들에게 잉여 로동에 의해서만 착취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 자본가들의 국가에 의하여 필요 로동의 일부까지도 합법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현 시기 로동자들에 대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착취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인 범위에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구라파 《공동 시장》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 시장》 참가국의 지배적 독점들은 참가국들 간에 로동력의 자유로운 교류, 일반적 로임 수준의 설정 등을 《협약》함으로써 렴가한 로동력을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공동으로 착취하며 로임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 내릴 것을 획책하고 있다.

최근 년간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서 《공동 시장》이 차지하는 지위가 상대적으로 제고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그 참가국들이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함으로써 생산비의 현저한 저렴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데 기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이것은 독점 자본가들의 국제적 련합이 본질 상 로동 계급에 대한 국제적 착취와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공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로동자들의 물질적 형편의 악화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나라들의 정치 생활에서 지배적인 추세로 되여 있는 파쑈화 경향의 강화를 초래케 한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자들은 강제적이며 병영적인 규률에 결박되여 있으며 일체의 정치, 경제적 권리를 유린 당하고 있다. 실로 각종 악법들(례하면 미국에서 악명 높은 《타프트 하틀리법》, 《맥카란법》, 서부 독일에서의 《로동 비상 사태법》 등)이 로동자들의 인권과 정당한 로동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다.

로동자들을 현대의 노예로 유지하려는 야망은 자본 일반에 고유한 본성이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더욱더 심각화되고 있는 오늘 자본의 이러한 본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횡포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온갖 고통과 빈궁이 로동자들을 2중 3중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부르죠아지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현대 부르죠아 국가가 사회 우에 선 《로동과 재산 관계의 조절자》로, 그리고 국가 간섭 하에 로자 간의 《전반적 복리》와 《생활 수준의 균등화가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와 기만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 준다.

결국 레닌이 말한 비와 같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란 로동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에 대한 자본의 각종 공개적인 또는 은폐적인 착취는 극도로 강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로동 계급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이미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떠벌림으로써 자본주의의 착취자적 본성을 엄폐하며 자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객관적 현실은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로동 계급의 빈궁과 무권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을 날마다 새롭고 풍부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다.

현실은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설교하는 부르죠아지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황당한 《리론》을 여지 없이 론박하고 있다. 그들의 설교야말로 자본의 지배를 반대하여 일떠선 혁명적 로동 계급들에 대한 우롱이며 현실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로동 계급의 처지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

로동 계급이 착취와 빈궁과 무권리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부자와 빈자,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분렬케 하는 근원인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제도를 뿌리채 뒤집어 엎고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 숭고한 력사적 과업이 오늘 자본주의 나라 혁명적 로동 계급들 앞에 나서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개량주의 및 수정주의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자본의 지배를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이 위업은 성취될 수 있다.

문학적인 주제, 생동한 성격

석 윤 기

흥성거리는 우리 생활의 반영으로서 각이한 개성을 가진 새로운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이 더욱 많이 창조되고 있다. 억센 청년들과 아름다운 처녀들이, 듬직한 로동자들과 수더분한 농장원들이 삼삼이 눈앞에 떠올라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위대한 우리 시대에 대해서, 천리마 기수들의 위훈과 당의 해'발 아래 사는 서로의 행복, 미래에 대한 랑만적인 꿈에 대해서 주야로 소곤거리며 이 벅찬 시대를 우리와 함께 살아 가고 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몇 십대 후손들과도 친해질 것이다. 얼마나 좋은 열인가! 그것은 곧 우리의 리상, 우리의 위업이 먼 후대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꿈, 우리의 위업에 비해 볼 때 아직도 그러한 주인공의 수가 충분할 만큼 많지는 못 하다. 온 세계에 향하여, 먼 후대에 향하여, 이 로동당 시대와 이 시대의 인간들에 대해서 빠칠 수 없는 극히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한다 해도 더욱 목청이 크고 더욱 오랜 수명을 타고 난 그러한 주인공이 더욱 많이 창조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학 작품의 질을 가일층 제고할 데 대한 열렬한 희망을 표시하면서 《무엇을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소박한 말 속에는 실로 많은 뜻이 포함되여 있다.

나는 훌륭한 주제, 위대한 시대적 사상을 아름답고 진실한 형상 속에 구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이 소박한 말이 십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형상을 강조하는 나머지 주제를 홀시하는 음조를 풍겨서는 안될 것이다.

때로 우리의 붓이 서툴려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애당초 그 어떤 스라소니나 고양이 따위를 그리려들 필요는 없다.

주제에 대한 홀시의 경향은 특히 부르죠아 반동 문예 《리론》들이 창작에서 세계관의 역할을 거부하며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당성, 계급성 원칙을 악랄하게 공격해 나섬으로써 문학을 무사상성의 진구렁 속으로 몰아 넣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과 관련하여 더구나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비록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백치 따위는 아예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문학사는 생활 현실에 튼튼히 발붙인 적극적인 주제가 결여된 훌륭한 작품을 알지 못 한다. 최근 시기 창작된 성공적인 작품들—례컨대 단편들인 《길'동무들》이나 《백일홍》만 두고 봐도 이러한 작품들은 작가들의 투철한 사상적 립장과 높은 미학적 리상의 반

영으로서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주제가 있음으로써만 독자들의 그렇듯 지극한 사랑을 받는 형상이 창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을 쓰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편으로 주제에 대한 비속한 견해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쓰는가?》 하는 것은 지극히 명백하다. 우리 매개 작가들은 한결 같이 《우리 혁명과 새 생활 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을 형상화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교양》(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89~90 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천리마의 대진군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동하게 묘사하며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동시에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공산주의 투사들의 형상》(우와 같은 문헌, 90 페지)을 창조하는 데 작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작가들에게 지워진 이 엄숙한 당적 과업은 사실 상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시대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위대성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전면적으로 형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창작 실천으로써 이 요구에 대답하되 그것을 어떤 정책의 직설적인 해설이나 미담의 기록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놀랄 만한 무지를 증명하는 결과 밖에 가져 올 것이 없다.

우리 앞에 위대한 현실이 있고 아름다운 인간들이 있다. 우리들은 현실의 이 위대성과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낀다. 그리고 그 본질을 일정한 사색과 판단을 거쳐서 짤막하게 론리적으로 추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추상적인 론리가 곧 문학 작품의 사상으로, 주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례컨대 단편 《비례봉》에서는 산간 지대의 지방적 특성을 살려 노박덩굴로 천을 짜야 하며 그러한 창의 창발성이 우리 당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받드는 길이라는 사상이 천명되고 있다. 론의할 여지 없이 정당한 이 사상도 그러한 사상이 구현된 가장 적절한 형상적 형식-생활과 성격을 통해서 보여 주지 못 하다 보니 창의 고안의 따분한 기술적 공정과 함께 생경하고 추상적인 론리 그 자체가 작품 속에 앙상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었다.

사상의 형상화 과정은 수사학적인 언어 형상 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 주제에 대한 형상적 파악으로부터 시작된다. 작가의 예술적 능력은 당과 로동 계급의 사상을 도해하는 그럴듯한 도식을 만들어 그것을 미끈한 묘사와 문장으로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현된 생활 즉 그러한 사상을 체현한 성격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얽혀진 인간 관계를 발견하고 그 인간 관계의 발전 과정을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정황 속에서 진실하게 추구함으로써 그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오는 결론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하는 데 있다.

실례로 《길'동무들》을 들어 보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승냥이다.》라는 원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공산주의 사상이 승리한 우리 나라에서는 진실로 새롭고 아름다운 인간 관계가 형성되였다. 한결 같이 당의 사상으로 무장되였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맡은바 사업에서 저마다 공산주의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 분투하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동지들을 끔찍이 아끼며 친형제보다 더 살뜰한 우

정과 동지애로 얽혀져 있다. 우리 나라에 형성된 이 새로운 인간 관계의 기저에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온갖 고통을 청산하고 이 땅 우에 인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사상, 고상한 공산주의적 인도주의가 놓여 있다. 우리들은 모두 자신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상한 인간 관계를 체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동지적 관계로써 모든 공민들과 얽혀지고 있는 것이다.

아침마다 출근 길에 나서면 나는 무수한 낯선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보도에 넘칠듯이 흘러 가는 사람들, 전차'간에 이웃하여 앉은 사람들…그리고 혹 출장 갔을 때 려관'방에서 하루'밤을 같이 묵은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성도 이름도 모르며 더구나 그들의 사업과 생활 같은 것은 알 길이 없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낯선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고 헤여지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단편 《길'동무들》을 읽자 문득 그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는 로정에서의 나의 친근하고 다정한 길'동무들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나는 그 때로부터 새로운 눈으로 출근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뜯어 보게 된다. 려관'방에서 만난 출장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 이야기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들에게 방조와 조언을 주고 싶으며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 나와 우리의 후손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헌신 분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하여 자기 사업에 더욱 이악하게 달라 붙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찌하여 이 단순한 진리를 나는 미처 깨닫지 못 했던가 하고 의아스럽게도 생각되지만 그보다는 뒤늦게나마 나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준 작가가 고맙게 생각된다.

《길'동무들》의 사상이 감명을 주는 리유는 단순히 그 사상을 론리적으로 정연하게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써는 그러한 사상을 배운 지가 오래다. 《길'동무들》의 작가는 그 사상을 도식으로 도해하며 론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생활—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정황에서 맺어지는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성격들의 호상 관계에 형상의 각광을 집중하면서 기차'간에서 우연히 만난 아름답고 나어린 처녀 명숙이와 《귀밑에 희끗희끗 성긴 서리가 돋힌》 50 가까운 군당 위원장이 서로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포부와 지향, 인민들의 행복에 대한 공산주의자로서의 높은 책임감, 그리고 자기 고장의 래일에 대한 랑만적인 꿈으로 하여 공산주의로 가는 로정에서의 믿음직한 《길'동무들》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 주었다.

생각컨대 이 작품의 성과는 우리의 천리마적 현실이 빚어 낸 새로운 인간 관계에 관한 그러한 사상을 포착한 그 때로부터 벌써 약속된 것으로 보아진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이, 기차'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조차도 서로의 공산주의 리상과 고상한 품성으로 하여 공산주의로 가는 길'동무들이라는 이 사상은 벌써 그대로 아름다운 《형상의 옷》을 어느 정도 재단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기차'간에서 만난 다른 길'동무들, 례컨대 배구를 치는 청년들이며 생강술을 마시면 늙스구레한 협동 농장원들에 관한 세부라든가 기타 이 단편을 빛나게 한 재치있는 매 세부들에 기울인 작가의 노력을 다소라도 에누리해 보자는 것이 아

니다. 다만 나는 그렇게도 명백히 설정된 문학적 주제가 있는 경우에 세부들의 선택 배렬이라든가 구체적인 언어 형상 작업에서도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이와 반대로 농통하고 막연한 주제(사실 상 그것은 문학적 주제가 아니다)일 경우에는 결국 천신만고해서 당 정책을 도해하고 《상식적》인 교훈을 라렬하는 것으로 《사상성》을 해결하며 오뉴월의 솜바지와 같이 읽는 사람까지 땀이 나는 지루하고 따분한 《묘사의 비대증》으로써 《형상성》을 해결하려 드는 것이다.

'《길'동무들》의 실례는 문학 작품의 주제가 객관적인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작가의 적극적인 립장 및 탐구의 결과에 태여 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해 준다.

여기서 작가의 립장을 규정하는 것은 세계관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세계관이란 어떤 지식의 퇴적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견해와 인식의 총체를 말하며 그것은 시대와 사회 제 현상에 대한 사상 정치적 립장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작가에게서 사상 정치적 립장은 구체적인 창작 실천에서 주제를 포착하고 규정케 하며 형상 체계 전반을 하나의 빠포스로 관통케 한다. 그러므로 투철한 세계관적 립장이 없고 시대에 대한 뜨거운 공감이 없을 때, 오직 작가의 체면을 유지하거나 그 어떤 《생활 상 요구》에 의하여 무엇인가 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따위 《자각》으로 자신을 강박할 때 거기서는 불가피하게 도식과 미담의 따분한 점철이 생겨 나며 《만인 주지》의 교훈을 설교하는 막연하고 농통한 사상이 작품의 주제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문학적 주제는 정황 묘사와 성격 창조를 통해서, 주로는 성격을 통해서 실현된다. 정황은 성격의 어머니이다. 정황 없이 성격이 창조될 수는 없는바 일정한 사회 력사적 정황은 성격에 가장 본질적인 속성들과 행동의 론리를 규정한다. 그것은 문학에서의 성격이 사회 제 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 성격으로 나타나는 사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전형적인 정황 속에 놓인 전형적인 성격은 불가피하게 작가의 사상을 말하기 마련인 것이다.

《생동한 성격이 있는데 주제는 없다.》는 식의 평을 받는 작품들이 있다. 알고 보면 그러한 작품에서의 《성격》은 사실 상 문학적 범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례컨대 성급하다든지, 늘어졌다든지, 혹은 키가 크다든지, 땅딸보라든지 하는 따위의 심리학적 내지는 생물학적 범주에 보다 가까운 이른바 《개성》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일정하게 전형성을 띤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없다.》는 작품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화라는 개념을 주인공의 연설이나 작가의 설명과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개성화를 어떤 심리학적 혹은 생물학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일반화를 정책이나 사상에 대한 연설과 주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전형적 성격의 창조 과정에서 작가들의 머리카락이 그렇게도 빨리 세여 버릴 까닭은 없는 것이다.

성격이 위력한 주제를 천명하며 높은 인식 교양적 의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됨됨이 산 사람 같이 생동하고 진실하게 안겨 와야 하며 친숙감이 있으면서도 스승으로 모시지 않을 수 없도록 높은 뜻을 간직한 개성으로 되여야 한다.

《백일홍》의 실례를 보자.

이 단편을 읽고 그렇게도 큰 감동을 받는 까닭은 우선 소설의 주인공인 현우혁 부부나 소년 영호 등이 우리가 언제든지 문전을 나서기만 하면 만날 것 같은 진실감과 친숙감을 자아내는 데 있다고 보아진다. 일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는가 하면 원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 싸우다가 조국의 이름 없는 골짜기에 쓰러진 이름 없는 영웅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신문 보도나 아직 국가 수훈자 명단 속에 끼여 들지는 못하였으나 광활한 조국의 어느 품속에선가 성실하게 자기 직책을 다하고 있는 수백만의 믿음직한 천리마 기수들의 모습이 인적 드문 심산 유곡에 활짝 피여 난 한 떨기 백일홍과 같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런 수수하고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영웅적인 정신 세계를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새삼스럽게 우리 시대의 위대성을 느끼며 수백만의 그런 인간들에게 떠받들려 있는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뚜렷이 내다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으로 하여 천대 받고 무지로 하여 멸시 당하던 저주로운 계급 사회를 청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들을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활짝 꽃피워 당당한 나라의 주인으로, 시대의 영웅으로 길러 준 당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현 우혁 부부와 소년 영호의 초상 속에는 당의 사상으로 자라났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공산주의 래일을 확신성 있게 앞당기고 있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 대중의 일반적 특질이 반영되여 있다. 이리하여 단편 《백일홍》은 우리 시대의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들의 위대성에 대한 송가로 되였다.

우리 사회 제도의 본질을 밝히고 있는 이런 크나한 주제가 짤막한 단편 속에서 그렇게도 진실하고 힘 있게 실현된 것은 입이 무거우면서도 웅심 깊은 열정을 가진 우혁이, 생기 발랄하고 진취성이 강한 금녀, 당돌하면서도 소년답지 않은 무게와 깊이를 간직한 영호의 개성적 특징들이 우에서 지적한 우리 시대 수백만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과 결합되여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창조되였기 때문이다.

《백일홍》의 창작 과정을 회상하면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이전부터 산간 벽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누가 보나 마나 묵묵히 그리고 일정한 기한의 약정도 없이 우리 사회를 위하여 꾸준히 일하고 있는 평범한 공민들을 많이 보아 왔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마천령 기슭으로 하루 한 축씩 순회를 하고 있는 산림 감시원, 개마 고원의 어느 한 숲 속에서 여름을 나고 서리와 눈을 맞으며 광맥을 찾고 있는 지질 탐사대원들, 그리고 해발 2,000 메터의 산상에서 첫 괭이질을 하고 있는 광산 개발자, 그리고 동해안의 어느 한 자그마한 무인도에서 천해 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 처녀들을 나는

많이 보아 왔다. 이들은 모두 한결 같이 억세고 강의한 의지와 완강한 투지의 소유자이면서도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작품의 원형으로 된 공인 선로반의 락석 감시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왕청 같은 데》서 《백일홍》의 창작이 시작되였다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 우혁 부부의 내면적 초상과 신통히도 방불한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으며 그 많은 《평범한 공민》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하나의 특징—하나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작가는 오랜 생활 탐구와 관찰을 통해서 천리마 대진군의 정치 도덕적 기초로 된 당의 정책과 로선을 자기 자신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접수하였으며 혁명의 위업과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고 있는 인간들을 보았으며 실재적 미담의 주인공들인 공인 선로반 락석 감시원 부부의 정신적 초상 속에 그 모든 인간들의 특징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현 우혁 부부와 영호는 우선 산림 감시원도 탐사대원도 광산 개발자도 양식공 처녀도 아닌 비반복적인 개성이지만 동시에 그 모든 사람들의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가장 본질적인 성격적 특질과 특성을 체현하고 있는 점에서 신통히도 그 모든 사람들과 방불하다. 그 방불한 것—그들의 주도적 성격의 핵을 이루고 있는 그 것이야말로 《백일홍》의 주제를 실현시킨 것이다.

주도적인 성격의 핵이 서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혁과 금녀 그리고 영호가 서로 다른 개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 매 성격의 력사가 개성적이며 각이한 사회 력사적인 정황 속에서 굴절 있게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느 것이 일반화를 위한 세부이고 어느 것이 개성화를 위한 세부라고 가려 내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럴 수는 없다. 심리 묘사, 대화, 행동, 자연 묘사, 통털어 모든 세부가 동시에 일반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는 생활에서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러저러한 개성적 특질을 가진 한 사람의 산 인간이 떠오르는데 그는 곧 공산주의로 가는 궤도를 떠 받들고 있는 하나의 조약돌인 동시에 진정한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인 것이다.

《백일홍》의 실례는 개성화와 일반화가 기질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을 이른바 《기교》라고 불리는 아교를 가지고 조립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생활 탐구 과정에 작가의 머리와 심장 속에 잉태되여 오랜 작가적 사색과 창작적 진통을 거쳐서 유기체의 현상과 같이 산 인간이 태여 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이 경험은 크나한 시대적 사상을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적 형식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의 묘사를 통하

여 크나한 시대적 사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주인공을 어떤 진부한 인정 세태의 진구렁 속으로 몰아 넣는다는 것과 혼동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생활을 그 력사적 구체성 속에서 진실하게 반영하려 한다면 모름지기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영웅적인 사실로 충만되였으며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들이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이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여야 하겠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위대성이 있고 당의 사상이 구현된 진정으로 선진적인 사회 제도가 낳은 새로운 인간 성격들이 있다. 우리 시대의 평범한 생활과 인간을 그린다는 것은 사실 상 영웅적인 정황에서 영웅적인 성격을 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은 결코 《비범한 정황》에서의 《비범한 성격》의 창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될 수 없다. 특히 단편인 경우에 일상적인 정황이 아니라 례컨대 일생에 한두 번 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적인 정황 속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비범한 성격이 창조될 수 있으며 또 창조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우리의 천리마적 현실 자체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으로 충만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력사적 본질과 동떨어진 그저 《신기하고》 《기발한》 것에 불과할 때는 렵기, 탐정 소설의 아류 따위가 생겨 날 것이 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는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어 보기로 하자.

최근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는 소설에서 사건이 중요한가, 성격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는데 이에 대해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세 가지 해답이 다 나왔다. 혹자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혹자는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혹자는 사건과 성격이 똑 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가 련상되였다. 그것은 아이들의 사고 능력의 건전성 여부를 시험하는 것인데 솜 한 그람이 더 무거우냐, 철 한 그람이 더 무거우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은 대답은 솜이 더 무겁다는 대답일 것이요, 다음으로 어리석은 것은 철이 더 무겁다는 대답일 것이요, 그 다음으로 어리석은 것은 똑 같다는 대답일 것이다. 똑똑한 아이는 이런 경우에 《이거 왜 이래, 누구를 놀리는 거야?》하고 코웃음을 칠 것이다.

사건이란 우선 그 중요성이 성격과 비교될 만한 대등한 문예학적인 범주가 아니다. 소설에서 사건은 슈제트와 일치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일부로 될 수도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정황과 일치될 수 있고 혹은 그 일부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정황인 경우에는 그 속에서 성격이 창조되는 것이요, 슈제트인 경우에는 그것이 곧 성격의 결과이며 그 발전 과정에 성격이 형성되고 창조되는 것이다. 성격이냐, 사건이냐 하는 문제는 혹 취재 과정에는 제기될 수 있으나 창작 과정에서는 아무런 실천적인 의의가 없다. 더구나 그것을 어떤 모순 관계에서 본다는 것은 말'공부를 야기시킬 뿐이다. 사건을 동반하지 않는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성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무덤 속의 송장을 끄집어 내여 연설을 시키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성격에 복무하지 않는 사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불꺼진 화로와 같은 것이다.

* *

창작적 령감의 어머니인 위대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고 아름다운 인간들이 도처에 있다. 당의 총애와 기대 속에서 시대의 가수인 우리 작가들은 걷잡을 수 없는 창작적 충동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다. 당의 사상,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해박한 생활 지식과 높은 기교를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때 거인적인 우리 시대의 주인공이 태여날 것이며 심오하고 위력한 주제가 천명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문답 학습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은 사회적 의식 형태의 하나이다.

도덕을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 의하여 설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정신》, 종교, 《인간의 선천적 심리》 등 정신적 현상에 의하여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도덕을 옳게 리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 문제로 되였다.

맑스 전 사회학자들은 도덕의 기원, 본질 등을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 현상에서 찾았다. 당시에 있어서는 도덕을 종교적 편견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한 유물론자들의 시도조차도 이러한 관념론적 문제 해결의 범위를 벗어 날 수 없였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착취 계급의 리론적 대변자들이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들의 계급적 제한성은 결국 사회적 제 현상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유물론의 견지를 고수할 수 없게 하였다.

맑스주의의 발생과 더불어, 력사적 유물론의 발생과 더불어 처음으로 도덕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가 성립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도덕의 원천을 사회 경제 생활에서 찾았다. 그들은 도덕을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 보았다.

사람들은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실천 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활동 과정에서 호상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생활적 규범을 필요로 하였다. 그것이 바로 도덕의 발생과 발전을 조건 지은 근본적 요인이였다.

도덕은 사회 생활에서 사람들 호상간에, 또한 사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행동상의 원칙, 규범이다.

사회 생활에서 사람들의 행동 원칙, 규범으로 되는 것은 도덕 뿐만 아니라 법도 있다. 도덕과 법은 사회 생활에서 노는 역할과 기능이 같은 측면이 있으면서도 구별된다.

법은 성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은 그렇지 않다. 도덕은 그것이 사람들의 량심, 사회적 여론 등에 의하여 유지된다면 법은 물질적 수단 즉 국가 기관, 재판, 검찰 기관, 경찰, 감옥, 군대 등에 의하여 유지된다. 도덕은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규제하지만 법은 지배 계급의 리익에 가장 가까운 것(조항에 박힌)만 규제한다. 법은 지배 계급의 리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데 비하여 도덕은 간접적으로 대변한다. 도덕은 원시 사회에서 발생하였고 인류 력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지만 법은 계급 사회에 와서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계급 사회의 조락과 함께 조락한다.

도덕은 계급성을 가진다.

모든 사회적 의식 형태들이 그러하듯이 도덕도 역시 계급성을 가진다.

계급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계급의 도덕은 착취를 합리화하는 데 복무하며 착취 받는 계급의 도덕은 착취를 반대하고 계급의 해방을 달성하려는 투쟁에 복무한다. 착취 계급의 도덕과 피착취 계급의 도덕은 적대적으로 대립하며 부단히 투쟁한다. 그러나 도덕은 경제적 토대를 반영하니 만큼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도덕이 지배적 도덕으로 된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부르죠아 도덕이 지배적 도덕이다.

부르죠아 도덕도 포함한 모든 착취 계급의 도덕은 그들의 착취와 재부를 옹호하기 위한 리해 관계를 반영하였으니 만큼 본질 상 개인 리기주의 도덕으로서 특징 지어지지 않을 수 없다.

부르죠아 사회에는 부르죠아 도덕과 대립하여 프로레타리아 도덕이 존재한다.

프로레타리아 도덕의 기본은 집단주의이다. 잃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는 프로레타리아에게는 개인적 리해 관계만을 옹호할 도덕적 규범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부르죠아지의 착취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는 데 복무할 생활적 원칙이 요구된다. 적수공권의 그들에게는 오직 단결만이 가장 힘 있는 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도덕은 집단적인 단합을 위한 집단주의 도덕으로서 특징 지어진다. 이것은 그들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전 인민적 소유를 확립하려는 미래의 목적과 합치된다.

개인 리기주의와 집단주의—이것은 정반대되는 도덕적 원칙이며 따라서 이 량자는 부단한 투쟁 과정에 처하여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집단주의 도덕에 의한 부르죠아지의 개인 리기주의 도덕의 종국적 극복은 온 세상에서 부르죠아 제도와 그것이 남긴 온갖 흔적을 완전히 청산하고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야 프로레타리아트의 도덕은 전 인류적 도덕으로 발전한다.

엥겔스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계급적 모순과 이에 대한 온갖 회상을 초월하는 참으로 인간적인 도덕은, 비단 계급의 대립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그것의 흔적마저 사라지는 그러한 사회 발전 단계에 있어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반듀링론》, 122 페지)

아직은 이러한 도덕 생활의 목표가 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벌써부터 그 어떤 《초계급적》, 《전 인류적》 도덕이 가능한듯이 사태를 외곡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덕의 일반적 법칙이란—의무, 영예, 량심 및 기타의 범주에 표현된 보다 추상적인 규범이다. 이런 범주들은 기본적으로 전 인류적인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리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도덕을 이에 대립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 도덕에는 《인간성》과 《개성의 자유》가 좀 결여되여 있는듯이 말하고 있다. 즉 이것은 부르죠아지도 다 사람인데 프로레타리아트는 그들을 덮어 놓고 반대해 투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부르죠아지의 《인자한》, 《리성적》, 《배려》를 믿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수정주의자들의 설전과 그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문학 예술 작품들이 거의 이 따위 《인도주의》를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사람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자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망과 비인간적 착취, 략탈을 보지 못하도록 하며 모든 착취, 계급의 본성을 보지 못 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에 있어서, 사회 계급적 해방을 위한 각국 근로자들의 투쟁

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해독제로 된다.

지구 상에 두 개의 대립하는 적대 계급이 남아 있는 한 도덕의 계급적 성격은 없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도덕의 승리를 촉진하며 혁명의 승리를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도덕은 계승성을 가진다.

사회 발전의 선행 단계들에 있어서의 도덕적 규범, 견해들은 다음 단계에 전하여진다.

계승성도 계급적 견지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수정주의자들은 《사랑》, 《우정》, 《모성애》 등은 옛날부터 본래 《전 인류적》 도덕 규범으로 전해 내려 온다는 것이다.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계급 간에 어떻게 《사랑》과 《우정》, 《모성애》 등이 공통적으로, 《전 인류적인 것》으로 성립되여 올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과거의 모든 력사를 계급 투쟁의 력사로 보는 맑스주의적 견지에 대한 기회주의적 견지의 반동성을 증명하는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맑스주의자들은 계승성을 계급성과 떼여서 보는 립장을 철저히 배격한다. 착취 계급의 도덕이 결국 피착취 계급에게 계승될 수 없다.

우리는 정 다산의 《목민 심서》에서 좋은 도덕적 견해들을 배우고 있다. 물론 그는 선진적 사상가였으나 사회-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좋은 것만을 쓰지 않았다. 《목민 심서》의 전 사상적 내용에는 부정적인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는 압박 착취 당하는 농노-농민들의 생활을 동정하였으며, 그들의 립장에 서려 하였으며, 그들을 해방하려는 견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저서에는 적지 않게 인민적 사상의 고귀한 알맹이들이 반영되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책을 귀중히 여기고 있다.

우리 로동 계급의 도덕에는 선행 단계의 근로하는 피착취 대중의 투쟁 과정에서 이룩한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도덕적 요소들이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덕은 선행 단계에서 물려 받은 도덕적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그의 혁신적 계승이며 새로운 투쟁 조건에서의 질적인 새로운 발전이다.

프로레타리아 도덕은 자기의 해방 투쟁 과정에서 자기 계급의 체계화된 세계관인 맑스-레닌주의와 결합됨으로써 공산주의 도덕으로 되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현대 사회의 가장 선진적 계급이며 혁명적 계급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신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착취 근로 대중을 해방할 력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또 그들은 모든 피착취 근로 대중을 완전히 해방함으로써만 자신의 종국적 해방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트의 생활적 리념은 가장 인도주의적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 도덕을 도덕 발전의 최고 단계로 되게 한다.

공산주의 도덕은 사회주의 하에서만 지배적 도덕으로 되며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공산주의 도덕은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부르죠아 도덕의 지배적 영향으로 하여 순조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공산주의 도덕은 로동 계급이 주권을 전취한 이후에야 지배적 도덕으로 전화되며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으로써만 비로소 전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아직 낡은 생산 관계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개인 리기주의를 산생시키는 물질적 지반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공산주의 도덕이 전면적으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없고 따라서 전면적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산주의 도덕의 전통은 이미 1930 년대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확립되여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 놓여 있었으니 만큼 지배적 도덕은 부르죠아 도덕이였다.

해방 후 로동 계급이 주권을 전취함으로써 공산주의 도덕은 우리 나라에서 드디여 지배적 도덕으로 되였다.

그리고 1958년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일적 지배의 확립과 더불어 공산주의 도덕은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되였다.

근로자들 속에서 널리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공산주의 도덕의 전면적인 승리와 발전을 보장하는 위력한 담보로 되고 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그들의 구호에는 바로 공산주의 도덕, 집단주의 도덕의 생활화를 위한 투쟁이 안받침되여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서로 밀며 이끌면서 로동을 통하여 집단을 단합하며 뒤떨어진 사람을 교양 개조하며 동지를 위하여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 서슴 없이 바치는 고상한 품성을 발양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당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과 동시에 공산주의 도덕의 성과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초계급적》 도덕을 운운하면서 양풍을 끌어 들이고 있으며 그리하여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을 못쓰게 만들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양풍이 들어 오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공산주의 도덕의 부단한 발전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만 우리는 양풍을 막아 낼 수 있고 우리 근로자들을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 삼진

기술 혁명과 기술 발전 계획

오늘 우리 앞에는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함에 있어서 현 시기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가일층 조직화하고 계획화하며 구체적으로 짜고 드는 것이다.

지난 시기까지는 이 문제가 오늘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았다.

복구, 개건의 과업도 있었고 도처에 예비들이 널려 있었으며 또한 기업소들의 기술 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았던 지난 시기에는 기술 혁신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직 사업이 오늘보다는 덜 중요한 문제였었으며 대중이 발동되면 새로운 기술 혁신안이 비교적 쉽게 도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과업이 일정한 정도로 진척되였고 기업소들의 기술 장비가 전에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생산이 비상히 째여진 기술 발전의 현 계단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현 조건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기술 혁신 운동을 과학적인 타산 우에서 세워진 구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조직화함으로써만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울 수 있으며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기술 혁신 운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는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기본 방도로 되는 것은 기술 혁신의 계획인 기술 발전 계획을 잘 작성하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이다.

오늘 당이 경제 지도에서 기술 발전 계획의 정확한 수행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것을 어김 없이 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기술 발전 계획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 시기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

기술 발전 계획이란 현대 과학 기술이 달성한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고 생산 공정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진행하며 새 기계 기구와 중요 시작품 생산을 조직하며 과학 연구 및 중요 시험 사업을 추진시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경제적 지표를 부단히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즉 그것은 기업소 기술 발전의 방향과 구체적인 조직 기술적 대책을 반영한 계획이다.

기술 발전 계획의 과업은 기업소에서 로동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완성된 기술 공정을 도입하며 고정 폰드 및 류동 폰드를 더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류동 자금 회전률을 촉진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 실현하는 데 있다.

기술 발전 계획은 여러 계획 지표를 가진 복합 계획이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계획 지표는 인민 경제 부문과 기업소의 생산 기술적 및 조직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 발전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포함된다.

1)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
2) 선진 기술 도입 지표
3) 생산 공정의 기계화 및 자동화 지표
4) 품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의 기계화 지표
5) 새 기계 기구 및 중요 제품의 시작품 생산 지표
6) 과학 연구 및 중요 시험 사업에 대한 지표 등이다.

상기 지표들은 모두 기업소 경영 활동의 질과 그 수준을 규정하는 질적 지표이다.

그 중에서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는 기업소 경영 활동을 총체적으로 특징 짓는 종합 지표이며 이여의 모든 지표들은 개별적 부문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부분 지표이다.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는 기업소의 고정 폰드와 류동 폰드의 리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지표이다.

즉 그것은 설비의 조방적 및 집약적 리용, 물자의 소비 기준, 제품의 질 등을 특징 짓는 지표이다.

례컨대 설비 리용률(공작 기계의 가동 시간 및 공작 기계 대당 가공량), 제품 실수률, 제품 단위당 원자재 소비 기준, 로동자 1 인당 고정 폰드의 장비도 등등이 그것이다.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는 경제적 지표—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원가 저하, 수익성 제고, 상품 회전률 등 지표들의 기술적 기준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 발전 계획에서 이여의 모든 지표들은 이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조직적 대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것들의 활동 결과는 총괄적으로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에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기술 발전 계획에서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 이외의 지표들에는 례컨대 설비의 현대화, 자재 원료 및 공구 지구의 생산, 유해 공정의 무해 공정으로의 전환, 생산 공정의 기계화, 힘든 작업 및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기계화, 새로운 제품의 생산 및 반공업화 시험 공정의 실시, 새로운 기술적 문제의 해결 등등이 있다.

오늘 기술 발전 계획의 정확한 수행은 인민 경제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기술 발전 계획의 집행은 나라의 기술 발전을 강력히 촉진하여 인민 경제를 부단히 장성시키고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기업소에서 기술 발전 계획은 기술 생산 재정 계획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기업소 경영 활동의 모든 측면을 반영하는 기술 생산 재정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1) 생산물의 생산 2) 생산 능력의 리용 3) 기자재 공급 4) 로동 조직 5) 원가 저하 6) 재정 등등과 이상 지표들의 실현을 기초 짓는 기술 발전 지표가 포함된다.

해당 기업소의 전개된 강령으로 되는 기술 생산 재정 계획의 성과적인 수행 여부는 기술 발전 계획의 옳은 작성과 그의 정확한 집행 여하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왜냐 하면 기업소들에서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의 장성, 원가 저하, 수익성의 제고가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 와서는 더욱더 새 기술 및 선진 기술 공정의 도입,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의 추진에 달리게 되였기 때문이다.

금년도 기술 발전 계획은 경제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원칙을 관철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있는 기계, 있는 설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물자 소비 기준을 낮추며 작업을 기계화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높이는 데 그 기본을 두고 있다.

이로부터 금년도 기술 발전 계획에는 우선 채취 공업, 경공업 및 농촌 경리 부문들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여 그 생산을 결정적으로 촉진하며 모든 부문에서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들의 가일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우리는 금년도 기술 발전 계획에 예견된 지표들을 모든 부문에서 정확히 실행함으로써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며 새로운 더 높

은 고지에 올라 서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모든 부문의 지도 일'군들이 현 시기 생산 축진에서 기술 발전 계획의 집행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무조건 실행하는 강한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사실 종래에는 일부 일'군들 속에서 그것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의 무책임한 현상이 있었다.

모든 경제 기관 및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고된 로동에서 근로자들을 하루속히 벗어 나게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리념을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계획의 실행이 이제는 생산 축진의 주되는 열'쇠로 된 현 실정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무조건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집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기술 혁신 운동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 기업소들에서 기술 발전 계획의 작성과 그 집행이 몇몇 기술 일'군들에게 일임되고 그것이 대중 자신들의 사업으로 되지 못한 데로부터 기술 혁신 운동이 많은 경우 산만하게 진행되였다.

이것은 종래 기술 혁신 운동이 기술 발전 계획에 철저히 립각하여 추진되지 못한 데 주로 기인된다.

그러므로 기술 혁신 운동에 대한 성, 관리국들로부터의 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에서는 작업반까지 기술 발전 계획을 주고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여 집단적 혁신 운동을 조직하며 기술 혁신에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기술 발전 계획의 집행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통제 기관들과 지도 일'군들은 기술 발전 계획의 집행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는 대책을 정확히 세우도록 하는 동시에 그 집행을 차요시하거나 응당 기술 혁신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현상과는 견결히 투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물질적 제재까지 포함한 해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배룡천

근로자 제 13 호(루계 227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7월 5일　　인 쇄 • 1963년 7월 3일

ㄱ－330399　　값 40 전

《항일 무장 투쟁 사적지를 찾아서》

이 책은 항일 무장 투쟁 사적지 조사단이 국내 주요 혁명 사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조사 수집한 수 많은 사료들 중 그 일부만을 수록한 것이다.

이 책에는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조직 진행된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업적과 위훈이 깃들어 있는 수 많은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에 대한 생동한 자료들이 수록되여 있다.

《꺼질 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 《서광이 비낀 땅》, 《또다시 조국에로!》 등에는 국내 혁명 운동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령도와 탁월한 전술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가라지봉을 찾아서》, 《지초리를 지나며》, 《유서 깊은 온성 땅》, 《룡당 나무》 등에는 항일 유격대들이 어떻게 간고한 투쟁과 시련을 이겨 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피어린 자욱》, 《두만강 하류에서》, 《관곡동 로인의 이야기》 등에는 항일 유격대들이 소부대 활동으로 이행한 1940년 이후 시기의 간고한 투쟁 면모를 감명 깊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과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함.